

문학적 번역론*

김 효 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 머리말

현대는 정보와 번역의 시대라고 한다. 아무리 중요하고 귀중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의 중요성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하며 번역은 세계를 향한 문화의 창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학문, 문화, 사상, 기술, 문학 등은 대부분 타언어권에서 번역을 통해서 유입되는데 번역은 문화유입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라는 현시류에 편승하여 다량의 번역물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다. 현대인의 생존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번역의 생명은 신속함과 정확함에 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오역과 번역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역된 번역물은 인간의 지적활동에 환경공해보다도 한층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현대 인류는 물질문명의 안이함에 젖어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전통적 가치관은 전도되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는 무너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성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문학작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작품 번역의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번역은 원문텍스트를 이해, 분석하고 번역등가를 찾아서 원문텍스트에 상응하는 역문텍스트를 생성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그러나 최적의 번역을 하기 위해서 번역가는 언어학적, 해석학적, 창조적 능력 외에도 정확한 판단력은 물론 역사, 문화, 심리, 사회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 즉 올바른 세계관을 지녀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1) 문학작품 번역의 난해성에 관해서 논의하고, 2) 문학작품을 번역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어외적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문학작품 번역방법으로서 전통적 문학작품 번역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¹⁾

* 이 연구논문은 1999년 5월 28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번역학 심포지움(번역과 문화)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최근의 문학작품 번역이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론하고자 한다.

2. 문학번역의 문제점

현대 문학작품 번역의 큰 흐름은 원문 중심에서 역문 중심으로 가고 있으며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국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예컨대 훌륭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어 능력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²⁾ 또 번역과정에서는 학문적 특성상 학제간의 연구로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언어능력보다는 문화 이해능력이 더 중시된다.

언어의 본질적 특성은 유추/변칙, 다형태/다의미, 잉여/결핍, 내포/해석 등인데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자의적이고 우연적이며 비논리적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훔볼트Humboldt가 언어는 본질적으로 인식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라 아닐 뿐더러 인지되지 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은 더욱 아니라고 주장했듯이 번역의 어려움은 그 연구대상인 언어 그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

모든 번역 가운데 정보나 의사전달의 목적보다 언어의 외적 표현을 중시하고 형식을 강조하는 문학작품 텍스트의 번역에서는 언어철학적, 미학적, 해석학적, 문체론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학작품 번역은 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문학작품 번역에서는 언어학적 의미에서 이미 복잡하게 구조화된 문학성을 구성하는 언어적 자료 또는 언어적 장치가 재조직되기 때문에 한층 더 고차원의 복잡한 기호학적 체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작가 자신의 고유한 표현의도로 보이는 사항도 텍스트의 여러 가능한 해석방법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Albrecht 1988, 170f.). 다시 말하면 번역이란 언어기호의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문자라는 형식(표현 수단) 속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정신과 문화, 즉 복잡한 언어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다양한 이질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세계관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번역자들은 위에서 아래로 즉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문화 → 텍스트 → 텍스트의 구조 → 문장 → 귀절 → 단어)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같은 텍스트라도 번역자마다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까닭은 1) 모든 번역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특유의 언어수행 모델을 가지고 있고, 2) 번역자의 번역능력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내용면에서 문맥상의 분포는 번역자마다 서로 다르며, 3) 단순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외한다면 자연어는 동일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궁극적으로는 번역자의 세계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출판물의 홍수 속에서 다량의 번역작품이 출간되고 있지만 그 질적 수준은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비문학적 번역은 현대언어학 연구의 적용 범위이지만 문학적 번역작업은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³⁾

언어는 문화의 표현이며 그것을 담는 그릇이다. 여기에서 문화란 물론 지적 활동의

2) 그 이유는 번역이 언어기호의 전환이 아니라 문화적 전이현상이기 때문이다.

3)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문학작품 번역의 난해성은 바로 그 대상 자체에서 연유한다.

총체로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형성된 인간활동의 모든 양상을 뜻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은 작가가 소속된 공동체의 문학전통과 단절되어 생성될 수는 없다. 이러한 문학전통은 그 자체 특유의 공통성을 지니며 또한 문화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학작품 텍스트는 세계관, 문학, 전통, 사회, 문화, 언어 등 이미 주어진 조건과 제약 아래 생성된다. 작품의 문학성을 나타내는 시어는 언어의 모든 양상을 포함하고 모국어의 역사적 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문학작품은 개체성의 실현이며 또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거나 발견한다.

넓은 의미에서 번역은 <말해진 것>이 아니라 <인식된 것>을 다시 인식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식된 것>이 규범이나 보편성이 아니라 개별성에 의해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현상이든 관찰자의 고유한 개체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번역에서는 작가와 번역자의 주관적 개체성이 이중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문학번역은 한층 더 난해한 문제가 된다.⁴⁾

문학작품의 미학적 분석 목적은 가치관의 본질적 기준을 확정하는 데 있다. 번역의 미학적 본질은 다른 모든 예술에서와 같이 가치 범주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가치는 작품의 당해 예술장르의 규범과의 관계에 따라 규정되는데 규범은 또한 역사적으로 이해된다.⁵⁾

표현예술의 발전과정에서는 재생의 규범(올바른 이해 즉 진실성에 대한 욕구)과 예술성의 규범(미에 대한 욕구)이 가장 중시된다. 그러므로 번역작업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미학적 반명제는 번역의 충실성(직역)과 자유성(의역)으로 구현된다. 충실한 번역방법의 주목적은 원문의 정확한 재생인 반면 자유스러운 번역은 우선적으로 원문의 아름다움 즉 미학적, 사유적 가치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Levy 1969, 68).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번역작품 독자의 배경과 미학적 경험이 원어작품 독자의 그것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데 원문과 번역문 독자의 상이한 미학적 기준에 상응할 수 있는 기준(비교점)을 찾는 것이 번역자의 중요한 임무이다. 물론 번역의 난해성은 이러한 기준을 찾는 작업이 극히 어렵다는 데 있다.

훔볼트가 1796년에 슐레겔A. Schlegel에게 보낸 편지에서 번역의 불가능성을 주장했는데 약 200년 후에 반드루츠키M. Wandruszka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문학작품 번역의 불가능성을 언급했다(Koller 1997, 9).

- 1) 문학작품이 쓰여진 형식은 문학작품의 본질적 특성 중의 하나이다.
- 2) 번역은 원어텍스트의 모든 본질적 특성을 보존해야 한다.

4) 일상어의 수준을 벗어난 자연어 텍스트(과학적 텍스트를 제외하고)의 해석은 그 텍스트의 여러 가능한 해석 방법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5) 발전과정에서 규범의 내용과 가치 서열은 변화한다.

- 3) 번역텍스트는 필연적으로 원어텍스트와는 다른 언어형식으로 쓰여졌다.
4) 위의 1)부터 3)까지에서 문학작품은 번역될 수 없다는 명백한 결론이 나온다.

어느 한 언어를 말하거나 혹은 그 언어에 능통하다는 것은 그 언어에 보존되어 있는 현실 파악의 개념에 노출되었음을 일컫는다. 그리고 어느 문화권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이 문화에 전승되어 있는 언어 즉 현실파악의 개념을 넘겨받았다는 뜻이다. 해방이란 언어비판일 수밖에 없는 문화비평이며 모든 번역은 어느 언어권에서 통용되는 것은 문제시하고 타파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전통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한다(ibid. 1979, 137).

번역은 문화의 변용이며 <말해진 것>이 아니라 <의미된 것>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번역의 핵심문제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언어 내적 사항(원어의 문법, 문체론, 텍스트화용론 등)과 언어 외적 사항(세계관, 문화)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식을 겸비해야 한다.

또한 번역은 제이의 창작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창작과는 달리 번역에서 창작이란 이미 주어진 범위 내에서의 제약된 창작이다. 번역은 규범적이 아니고 창조적 선택의 주관적 문제이기 때문에 번역자 자신의 번역능력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의미나 표현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역은 언어기호의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원어 문화권의 역사적 조건과 제약에 의하여 생성된 텍스트를 역어 문화권의 다른 조건과 제약에 상응하는 텍스트로 전환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환언하면 원어텍스트를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는 역어 문화권의 <세계관(이데올로기)>에 적합하도록 수정해서 번역해야 한다. 번역은 상이한 문화간의 전이cross-cultural transfer이다. 따라서 번역자는 문학작품을 번역하기 위하여 원어와 역어뿐만 아니라 원어권과 역어권의 문학과 문화에 관해서도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⁶⁾

3. 문학작품의 번역방법

기록으로 전해지는 유럽 최초의 번역가 안드로니쿠스 L. Andronicus는 그리스의 해방된 노예로서 BC 240년경 *Odysee* 오딧세이를 라틴어로 번역하였는데, 이 무렵은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는 것이 보편화된 때였다. 고대의 번역활동은 주로 로마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는데, 이들은 번역을 일종의 비교문체론에 관한 훈련으로 간주했으며 번역작업은 독자들이 이미 원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행해졌다.

번역이론에 관한 연구는 통시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시대의 번

6) 번역이론은 깊이있고 폭넓은 모든 번역의 지배적 특성은 목적이라는 목적이론과도 연관되며 기능번역이론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역의 이론, 기능,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 비교함으로써 현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번역이론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번역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인간이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정보의 교환을 필요로 하는 한 존속할 것이다.

최근 학계의 동향을 보면 르뤼브르A. Lefevere, 웨르메르H. Vermeer, 라이스K. Reiss 등에 의해서 언어 외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들의 논의는 언어와 문화는 상호의존한다는 가설에서 비롯한다. 홀볼트가 처음으로 언어와 문화, 언어와 인간행위 사이의 긴밀한 연관관계를 주장했으며 그는 언어를 정적인 어휘목록(ergon-작품)이 아니고 역동적인 것(energia-작용)으로 정의했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언어를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화자의 개체성과 문화의 표현이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1세기 후 사교가 언어를 선행하지 않으며, 반대로 사교는 언어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Sapir-Whorf의 언어상대성원리⁷⁾로 나타난다(Stolze 1994, 26f.).

번역문과 원문의 차이는 바르드R. Barthes가 언급한 것과 같이 작가는 대상을 보고 인식한 것을 집필하는 데 반하여 번역자는 작가가 사용한 언어를 상대하는 것이지 작가가 취급한 대상과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번역자는 작가의 언어만을 취급하므로 실제 세상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번역의 언어는 2차언어 즉 메타언어이다(Holmes 1970, 91).

3.1. 전통적 문학작품 번역방법

3.1.1. 원시적 번역방법

최초의 번역방법인 행간번역(Interlinearversion 방법⁸⁾)은 문학작품이나 성서번역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번역방법은 어느 시대나 가능하지만 원문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번역이기 때문에 원시적 방법이라고 불린다. 이 방법은 원어의 단어나 단어의 일부분을 역어로 대치시킴으로써 번역자의 원어와 역어에 관한 불충분한 지식을 은폐하게 했다. 행간번역은 단순한 언어관이나 원문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풍토에서 유래되었다. 예컨대 성서번역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단어의 위치를 바꾸는 것조차도 금기시되었다. 이렇게 번역된 텍스트는 이해하기가 힘들었고 또한 원어에 충실하기 위해서 역어의 어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두 언어가 혼합되어 불명료한 텍스트가 생성되었다.⁹⁾ 그러나 행간번역 방법¹⁰⁾은 번역의 한 이론으로 정립되었고 또

7) 언어상대성이론에 의하면 인간과 외적 세계관의 정신적 중간세계(geistige Zwischenwelt)는 언어적 성격을 띠며, 또한 언어공동체 구성원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8) 행간번역은 원문의 단어에 상응하는 역문의 단어를 써넣는 번역방법이지만 직역은 이보다 진보한 방법으로서 역어의 문법에 맞게 단어를 배열한 번역방법이다.

9) 그 이유는 모든 번역이론에 관한 논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전개되기 때문이다(Kloepfer 1967, 19f).

10) 성서의 프랑스어, 독일어 최초의 번역본, 셰익스피어,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첫 번역은 행간

한 번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행간번역이 축어역과 다른 점은 축어역에서는 어느 정도 역어의 통사규칙이 준수되기 때문에 대략 문장의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5세기 중엽에 독일의 인문주의자인 빌레Nicolas von Wyle는 번역시에 원어의 모든 단어는 그에 해당하는 역어의 다른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행간번역의 극단적 이론을 전개했다. 이러한 번역방법은 가장 자유스런 번역방법이 성행했던 17세기말과 18세기에도 적용되었고 현재에도 초보자를 위해서 사용된다(Kloepfer 1967. 20f.).

3.1.2. 충실한 번역(직역)과 자유스러운 번역(의역)

기원전 1세기에 키케로Cicero는 그 당시까지 가장 권위가 있었던 행간번역 방법의 독단적 견해에서 벗어나 단어의미에 <충실한 번역(직역)>과 <자유스러운 번역(의역)>의 이분법적 번역방법을 도입했다.¹¹⁾ 현대적인 의미로 보아 그의 이론은 의역에 해당되며 영향상의 등가Wirkungsäquivalent, 즉 독자에 미친 영향을 위주로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Albrecht 1998, 53f.). 그러나 그는 자유스런 번역이론을 일관성 있게 주장한 것은 아니며 철학적 텍스트의 번역에는 축어적 번역방법을 사용했다(ibid. 55). 알브레히트Abrecht(ibid. 55f.)에 의하면 키케로는 자유스러운 번역방법의 규범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실제로는 충실한 번역방법을 선호했다. 키케로는 원래 번역보다는 수사학에 관심이 있었다. 그의 본래 의도는 희랍의 웅변술(수사학)에 관한 연구와 보급이었는데 그는 충실한 직역방법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의 번역에 관한 보수적이고 산발적인 견해, 즉 이분법적 방법, 충실한 직역과 자유스러운 번역이 전통적 번역방법의 근간으로서 오랫동안 번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촘스키 N. Chomsky가 변형생성문법이론의 선구자는 데카르트Descartes라고 주장했듯이 번역이론가들도 그들의 명분을 위해서 그들의 선구자로서 키케로를 신봉했다고 볼 수 있다.

키케로는 “번역자는 해설자로서 원문의 표현에 충실하든지 또는 연설자와 같이 그의 청중을 고려하든지 해야 한다(Not ut interpret. ... sed ut orator.)”는 견해를 피력했으며 또한 수사적-문체론적 기능의 관점에서 “나는 사고와 형식 혹은 소위 예술적 형상을 우리의 습관에 꼭 맞는 언어로 번역한다”고 자신의 번역방법을 소개했다(Stolze 1994, 14f.).

그 당시 자신의 언어 구사능력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고 문체론에 능한 작가들은 원시적 번역방법의 유형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꼈는데 키케로는 그 첫 번째 사람이다. 그는 노예근성의 모사방법을 지양하고 자유스런 번역의 기틀을 마련했다. 키케로가 공식화한 자유스런 번역의 근본원칙은 퀸틸리안Quintilian, 플리니우스Plinius가 계승

번역에 속한다.

11) 그의 번역이론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의 번역서 *De optimo genere oratorum*의 서론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번역서는 분실되고 서론만 남아 있어 그의 번역이론과 실제를 비교할 수는 없다.

하여 원시적 번역방법과 정반대의 이론으로 발전시켰고 히에로니무스Hieronymus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러한 번역방법은 루터 M. Luther를 거쳐 쉘라이어마허 F. Schleiermacher에까지 계승되었다. 그 결과 원문의 중요성은 등한시되고 번역가 자신의 고유한 자주적 예술성이 강조되었고 역어의 어법을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번역자들은 원어의 어법을 차용하였다(Kloepfer 1967, 23f.). 고전시대 후기에 절정을 이루었던 자유스런 번역방법은 프랑스 고전주의시대에 한층 더 발전을 보게 되었다.

그 당시 번역은 개인적 실습에서 국민적 기대 사항이 되었고 그 유일한 목적은 국민의 취향에 절대적으로 부응하는 것이었으나 또한 하류작가들이 위협스러울 정도로 어법을 개혁하거나 국민적 특성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번역의 규범은 독자층에 의해서 설정되기 때문에 번역자들은 프랑스 독자층이 무엇을 혐오하고 있고 또한 무엇이 작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ibid. 26).

고대 번역이론의 대표자인 키케로와 히에로니무스는 가장 오래된 번역의 이분법인 <자유스러운 번역/충실한 번역>을 도입했다.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이 시기에 이미 번역과정에서 변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요인, 즉 <불변체Invariante>의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키케로에게 있어서 불변체의 개념은 분명하지 않다. 그는 희랍어 연설문의 의미, 문체와 영향을 번역텍스트에서 동시에 보존하려는 야심적 목적을 세웠으나 히에로니무스는 의미에 관해서만 불변체의 개념을 언급했다. <축어적wörtlich/자유스러운frei>의 대립쌍은 독일의 번역자들이 주장한 “가능한 한 충실하게 필요한 만큼 자유스럽게so treu wie möglich, so frei wie nötig”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번역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것도 단순히 생략해서는 안 되며, 생략할 수 있고 방해되는 것과 어떤 방법으로도 역어의 알맞은 표현형식을 찾을 수 없는 것만을 생략해야 한다는 마하이너 J. Macheiner의 말과 같이 번역은 단어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키케로의 번역이론은 약 400년 후 히에로니무스(348~420)에 의해서 다시 수용되었는데 그는 파마키우스Pammachius에게 보낸 편지에서 희랍어의 성서 텍스트를 독일어로 의역했음을 분명히 밝혔다(Störig 1963, 1).

히에로니무스는 단어의 위치 그 자체가 이미 불가사의한 성서를 축어역Wort für Wort이 아니고 의역Sinn für Sinn했다. 그의 견해로는 번역자의 임무는 외국어(원어)의 특성, 우아함, 힘, 특별한 음향, 아름다운 소리는 물론 이에 상응하는 인간적인 저자의 문체론적 특성을 보존하는 데 있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그가 서니아 Sunnia와 후라텔라Fratella에게 보낸 편지에서 축자역의 불가능성을 피력함과 동시에 문학적 재능만 지닌 사람이 전문적 교육이 없이 번역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자유스러운 번역에 관해서 비판을 가했다는 점이다.

또 한편 히에로니무스는 번역의 목적은 번역자 자신이 특수한 훈련을 쌓아서 습득한 자신의 모국어가 지닌 고유한 수단을 통해서 외국어를 수용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번역의 <충실함Treue>이란 외국어 텍스트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

을 보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의의전체 Sinnganze는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하위단계는 어구나 문장이 보존되어야 할 그 다음 단계의 전제이고 이것은 다시 어순, 아름다운 어조 Euphonie, 어원 등을 보존해야 할 다른 모든 단계의 전제조건이다. 이렇게 해야 만 전면적-축어적인 것 Vordergründig-Wortliches으로부터 접근할 수 없는 깊고 신비스러운 의의내용 Sinngehalt의 모든 의미가 보존된다. 만일 의미가 원어단어의 반복할 수 없는 텍스트 즉 특성이라면 번역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Kloepfer 1967, 34).

<충실한>과 <축어적>이란 용어를 정확히 정의할 수는 없다. 실제 번역과정에서 사용되는 것과는 반대로 <충실한>이란 말을 <축어적>의 동의어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번역의 원칙에서 <충실한>은 각운과 연관되며 <축어적>은 의도된 사태관계와 한층 더 밀접하게 관계된다. <축어적 번역>이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두 현상으로 이해된다.

① 통사체적 현상

여기서 <통사체적>이란 <단어는 단어로>, 즉 가능한 한 원문의 단어 순서를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유지한다는 뜻이다.

Gustav von Aschenbach war etwas unter Mittelgrösse, brünet, rasiert.

구스타프 폰 아셴바흐는 보통보다 약간 키가 작은 편인데 얼굴은 검고 깔끔하게 면도했다.

Gustav von Aschenbach was somewhat below middle height, dark and smooth shaven.¹²⁾

위의 번역은 통사체적 관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번역이다. 그러나 모든 통사체적 문제가 위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bow and arrow 활과 활 → Pfeil und Bogen 활과 활, weights and measures 무게와 양 → Masse und Gewichte 양과 무게, ein schwarzweisses Kleid 검고 흰 옷 → un abito bianco e nero 흰 옷, un table langue de deux mètres 길이 이미터의 책상 → ein zwei Meter langer Tisch 이미터 길이의 책상 등의 원문과 역문에서 단어 순서는 반대가 된다.

② 계열체적 현상

라신느 J. Racine의 비극 페드르 Phédre에 나타난 flamme 불꽃 noire, noirs presentements 현재, noires amours 사랑, mensonge 거짓말 noir, action 행동 noire 등에서 <noir 검은>의 사용법을 들 수 있다.

계열체적 등가개념은 원어의 단어들이 대상과 사태관계를 표현하는 서로 상이한

12) 토마스만의 소설 베니스에서의 죽음 Tod in Venedig의 영역인데 번역자 로베 포터 H. Lowe-Porter는 통사체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만족스러운 번역을 했다.

어휘목록일 것이라는 단순한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목록은 모든 개별어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이고 통일적이지만 불행하게도 개별어마다 다르게 명명되었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모든 번역자들은 언어학자들보다 이전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인식했다. 명확히 규범화된 학술용어를 제외하고 개별어 사이에서 정확히 일치되는 의미요소는 거의 없다.¹³⁾ 그러나 이러한 사태관계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번역작업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원문에서 아주 상이한 연관관계에 있는데도 동일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반복이 우연히 아니고 의도적인 경우이다.

이태리의 서정시인 웅가레티 G. Ungaretti는 페드르의 이태리어 번역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noir>를 <nero>로 옮겼다. 즉 이태리어는 이러한 번역을 허용한다. 그러나 쉴러F.Schiller, 슈뢰더R. Schröder, 빌리그W. Willige는 <noir>를 <schwarz검은, dunkel어두운, finster음침한> 등의 동의어를 사용해서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¹⁴⁾

번역과정에서 <충실한>이란 넓은 의미로 <축어적>으로 즉 원어텍스트에 제약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또 한편 <충실한>이 <축어적>과 모순될 수도 있다. 히에로니무스 역시 지나친 축어역은 불충실하게 된다고 했다. 또 한편 <필요한 자유스럽개>라는 구절만을 고립시켜 본다면 여기에서 <자유스러운> 가능한 모든 것을 뜻한다. <충실한>이 단지 각운 때문에 <축어적>과 동일시된다면 <충실한>은 정확한 의미에서 <축어적>이라는 개념과 대립된다. 각운은 순수한 언어적 이유 때문에 통사체적, 계열체적 축어역의 원칙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한편, 다음과 같이 원어와 역어가 전혀 다른 어휘를 사용할 수도 있다.

- ① She gathered her daughter in her arms.
그 여자는 그녀의 딸을 품에 안았다.
Sie schloss ihre Tochter in die Arme.
- ② J'adore les vieilles fotos.
나는 오래된 사진을 열광적으로 좋아한다.
Ich schwärme für alte Fotos.

①에서 영어의 “gather모으다”는 문자대로는 독일어로 versammeln, zusammentragen, ②에서 프랑스어의 “adorer”는 원래 독일어로 “anbeten숭배하다”이다. 그러나 번역자는 이 경우 역어의 어법에 따라 “gather”는 “jemanden in die Arme schliessen”으로, “adore”는 “schwärmen für”로 번역해야 한다(Albrecht 1998, 61~67).

13) 어장이론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14) 미국의 서정시인 로웰R. Lowell은 페드르의 번역에서 부주의인지 또는 언어상의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noir>의 번역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3.1.3. <친숙하게 하기Einbürgerung>와 <낯설게 하기Verfremdung>

번역은 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과 같다는 말이 있다. 번역자는 역어의 독자와 원어의 저자를 섬겨야 하는데 이 경우에 중용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어느 한 쪽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도 존재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것은 특히 독일 낭만주의시대에 자세히 논의되었다. 빌란트 Ch. Wieland의 서거(1813)에 즈음하여 괴테J. Goethe는 그의 추도사에서 번역가로서의 빌란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는데 참고할 바가 많다(ibid. 1998, 73).

번역에는 두 원칙이 있다. 그 하나는 작가가 우리들의 작가로 여겨지도록 그를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반해서 우리가 외국인에게로 다가가서 그의 상태, 어법, 특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몇 개월 후에 쉴라이어마허는 베를린의 왕립학술원에서 「Ue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번역의 여러 방법에 관해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ibid. 74).

나의 견해로는 번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번역가가 작가를 가능한 한 괴롭히지 않고 독자를 그에게로 움직이게 하거나 번역가가 독자를 가능한 한 괴롭히지 않고 작가를 그에게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괴테에게는 <친숙하게 하기>의 방법이 자연스러운 번역방법이었고 반면에 쉴라이어마허를 위해서는 <낯설게 하기>의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쉴라이어마허는 이러한 번역방법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플라톤 번역에 이 방법을 적용했는데 직역 혹은 의역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여 외국화 혹은 독일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융통성 있는 번역방법을 제시했다. 그가 내세운 번역원칙의 핵심만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Stolze 1994, 17f.).

- 1) 번역은 본질적으로 이해의 과정이다. 정보 전달과정은 상이한 두 언어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언어의 방언이나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텍스트 사이에도 필요하다.
- 2) 번역자는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번역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3) 제한된 연구대상과 객관적 사태관계를 명확히 나타내기 때문에 상이한 언어간에도 정확한 대응관계를 이루는 학술용어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는 개념이나 감각 또는 견해 등을 나타내는 어휘는 구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모든 개별어의 개념체계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 4) 원문의 <언어정신>이 역시 독자들에게 전달되도록 번역해야 한다. 번역의 효과는 외국어에 능숙하지만 낯설게 느껴지기를 선호하는 교양인의 취향에 맞추어야 하므로 독일어 바꾸어쓰기, 모사 등의 번역방법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

면 원문 중심의 번역, 즉 낯설게 하기의 방법이다. 이런 번역방법을 통해서만 원문의 형식과 내용이 역문텍스트에 충실히 반영된다.

또 다른 전통적인 번역방법으로는 드라이든 J. Dryden(1680)은 『오비드 서한집의 서문경Preface to Ovid Epistles』에서 번역의 세 가지 기본형태를 제시했다.

- ① 축어역metaphrase
- ② 의역paraphrase
- ③ 모사역imitation

드라이든은 아래와 같은 전제 아래 ②의 번역방법을 균형있는 방법으로 간주했다. 즉 시를 번역하려면 번역자는 시인이어야 하고 양국어에 능통해야 하며 원저자의 정신이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드라이든은 번역자를 초상화가에 비유하였는데 이 비유는 17세기뿐만 아니라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자주 거론되었다. 화가는 초상화를 본인과 닮게 할 의무가 있다는 드라이든의 번역방법을 계승한 포우프A. Pope는 시의 광채를 살리면서 문체나 작가 의도의 세세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원문을 정독할 것을 중시했다.¹⁵⁾

3.2. 현대 번역방법

3.2.1. 구조주의적 번역방법

1960년대에 슬라브어권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 형식주의에 근간을 둔 문학작품 번역이론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전통적 이론이나 독일학파의 과학적 이론은 규범적인 성격이 농후했고, <충실한/자유스러운> 등의 전통적인 이분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러한 번역방법은 구조주의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지양되었다. 특히 레비 Levý, 포포비치Popovič, 미코Miko 등을 중심으로 한 체코학파의 번역학자들은 구조주의적 번역이론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형식주의자들¹⁶⁾이 주장하는 <문학성>의 개념은 현재 성행하고 있는 문학번역 이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번역이론은 물론 심층구조의 생성적 요소에 기초한 참스키나 나이다E. Nida의 이론보다는 실제 텍스트의 표층구조 분석을 토대로 하여 전개되었다(Gentzler 1993, 78f.).

한편 이들은 나이다의 초기이론과 같이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원문의 내용을 규정하고 독자들의 수용을 위해서 텍스트를 조정하는 등의 문제는 등한시했고, 러시아 형식주의를 수용하여 이론을 전개했다. 한 예로 이들은 모든 다른 세계와 단절된 자

15) 줄저, 『번역학』, 민음사, 1998. pp. 51~52.

16)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심층구조에 관한 논쟁을 삼가고 텍스트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들에 의하면 문학텍스트의 특성은 새롭고 창조적이며 형식적인 데에 있다.

울적인 문학작품으로서의 문학개념을 거부했다.

체코학파의 번역이론을 고찰하려면 그 대표자격인 레비의 이론을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형식주의자들이 <시성poeticity>을 작품에서 객관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형식적 요소로 간주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번역이론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관건이다. 레비는 번역모델에서 작품의 <문학성>을 보전하기 위해 작품의 문학적 특성을 부여하는 원작가의 고유한 문체의 형식적 특성, 즉 특별한 의사소통적 양상을 중시했다. 물론 이 경우 기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포포비치(1970, 78)는 논문 「번역에서 '표현의 전이'의 개념The Concept 'Shift of Expression' in Translation」에서 번역과정을 이론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인 <표현의 전이shift of expression>를 도입했으며 모든 개인적 번역방법은 번역의 여러 계층에서 나타나는 전이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이란 원문과 관련하여 새롭게 나타나는 모든 표현이나 또는 마땅히 기대되는 곳에 새로운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경우로 해석되어도 무방하다. 전이라는 용어는 이전에는 번역분석이라는 말로 인식되었으며, 또한 언제나 고의적 왜곡, 번역자의 무능력, 두 언어간의 언어적 불일치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것을 상이한 문화적 가치와 문학적 규범의 개념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개념의 이론적 차원을 확대해석했다. 따라서 그는 오역의 책임을 번역자의 무지나 불성실성보다는 전이에 돌렸다.

레비 중심의 체코번역학파는 러시아 형식주의의 영향 아래 문학성을 규정하는 표현자질의 표현 즉 객관적인 문체론적 자질의 전이에 중점을 둔 번역이론을 전개했다. 그들은 수용문화권에서 예술적 대상으로 기능하는 미적 요인을 특히 중요시했다. 그러나 표현자질은 객관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미코(1970, 67~70)가 제시한 객관적인 문체론적 자질의 포괄적 목록 역시 모든 표현자질을 포함한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고 주관적 소지가 농후하다. 작품의 예술적 특성이 구조적 특성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된다는 가설은 이러한 번역이론이 전개된 시기의 특징을 지닌 현대주의나 미래주의적인 텍스트 분석에는 적합할지라도 다른 역사적 시기에 쓰여진 텍스트 분석에는 부적합하다. 또 대상의 일반적 이해를 전제로 하는 상징적 또는 은유적 텍스트, 설화문학, 시와 산문, 민담 및 선정적인 연극의 텍스트에도 이러한 가설이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텍스트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질로서 형식, 자체 지시성, 기술적technisch 병렬을 강조하고 이러한 형식적 특성을 전이할 수 있는 역어텍스트의 수용능력을 토대로 하여 번역을 평가했다. 그러나 상이한 미학적 접근 방법은 물론 상이한 역사적 시기나 문화 등은 텍스트의 다른 양상에 의거해서 평가되었다. 요컨대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파생된 번역이론은 <낯설게 하기(타언어화하기) 장치ostranenia(defamiliarization devices)>¹⁷⁾를 내포한다(Gentzler 1993, 79).

체코학파의 번역이론에 이미 기술적 방법론의 씨앗이 배태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17) 이러한 장치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술적 기법과 특징의 시기와 장소(여기에서는 유럽 사회)의 해석이론의 특성을 반영한다.

사실이다.¹⁸⁾ 체계적으로 전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은 상징적, 사실적, 운율적, 문자적, 음성적 번역이론에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론들이 문학적 차원은 물론이고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이의 개념을 충분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방법론 자체가 예술적 전통의 변화 및 교체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진화하는 사회적 규범과 주관적인 심리적 동기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벨기에 특히 푸레밍인과 네덜란드인들은 동유럽 체코번역학파의 이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3.2. 조작학파의 조작적 번역방법

동유럽의 체코번역학파에 이어 서유럽에 네덜란드 중심의 번역학파가 형성되었는데 이 학파의 대표적 구성원으로는 홀마스 J. Holmes, 브로엑 R. Broeck, 르휘브르 A. Lefevere, 이븐조하르 I. Even-Zohar, 바스네트-맥과이어 S. Bassnett-McGuire, 람베르 J. Lambert, 헤르만스 Th. Hermans, 투리 G. Toury 등이 있다.

최근 헤르만스는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논문을 모아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문학의 조작-문학번역연구(1985)라는 책을 출판했다. 그들은 <조작학파 Manipulation School>라고 불리는데 이 명칭은 그의 저서의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그는 서문에서 역어문학의 관점에서 모든 번역은 어떤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어느 정도 원어텍스트의 조작을 포함한다고 언급했는데 바로 이러한 주장은 이들 이론의 출발점인 동시에 언어학적 이론 중심의 번역학파와는 정반대의 이론이다(ibid, 7~15). 즉 조작학파 학자들은 번역과정에서 의도된 등가설정보다 공인된 조작을 가장 중시하였으므로 언어학 지향의 독일 번역학자들로부터 체계적 분석과 과학적 설명이 결여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헤르만스는 그들의 번역이론에 언어학적 이론을 적용할 것을 거부했다. 그에 따르면 언어학적 번역이론은 무표의 또는 비문학적 텍스트의 번역과는 달리 문학작품 번역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¹⁹⁾ 최근 텍스트언어학을 정립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어학적 방법은 문학작품의 복잡성을 취급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문학작품 번역을 위한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조작학파 학자들의 주요관심사는 역어의 민족문학 내에서 번역작품의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²⁰⁾ 그들은 번역텍스트를 역사적 대상으로서 하나의 자율적 텍스트유형으로 취급했다. 물론 그 이유는 번역을 통해서 유입된 외국적 요인이 역어권의 민족문학을

18) 체코 번역학파의 번역이론은 주로 근대와 현대 텍스트의 번역에 적합하지만 이러한 텍스트에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19) 독일 괴팅겐대학 Universität zu Göttingen의 문학작품 번역에 관한 학제간의 연구에 참여한 번역학자들은 1984년에 언어학적 번역이론은 문학작품 번역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0) 민족문학의 전통이 빈약하거나 결핍된 국가에서 번역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높다.

개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역어 중심의 번역이론은 대체로 기술적 deskriptiv 성향이 농후하다. 그들은 문학을 주어진 문학권 내에서 상이한 장르, 학파, 사조 등이 독자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상호간 항시 투쟁하는 다중체계polysystem로 보았다(Even-Zohar 1978, 7f.). 따라서 문학은 규범론자들의 장엄하고 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항상 변화하고 있는 극도로 동적인 형성물이다. 또 한편 그들은 번역의 수용사에 관한 고찰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폭넓은 역사적 묘사와 다양한 개별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조작학파의 번역이론의 특성은 치냐노프 J. Tynjanov의 서열적 문학체계 개념에 기초한 문학적 다중체계의 도입에 있다. 이러한 체계는 어느 한 사회에서 관련체계(문학적 또는 초문학적 체계)의 총체적 조직망과 연관된다. 조작학파의 번역학자들은 이를 통해서 그 문학권 내에서 모든 종류의 저술은 물론 번역 텍스트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또 한편 그들은 다양한 문학체계 내에서 번역의 역할, 예컨대 번역 텍스트와 문학적 다중체계의 관계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1) 번역되어질 텍스트가 수용문화권에서 어떻게 선정되었고, 2) 번역된 텍스트가 역어의 언어체계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특정의 규범과 기능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해명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문학적 다중체계의 장점은 체계 그 자체의 영역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문학을 사회 및 경제적 현상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학번역은 생존과 지배를 위한 불변의 투쟁에 참여하는 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특히 이스라엘 번역학자들은 어느 문학체계 내에서는 번역이 때로는 기본적, 창조적, 혁신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조작학파의 번역이론은 전통적 이론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역어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학파 자체의 원칙, 방법론 및 새로운 이론적 모델이 도입되었다. 그 학파의 구성원들은 역어텍스트를 강조했는데 이 사실은 그들이 전통적 번역이론과 언어학적 경향의 번역학의 규범적이고 평가적 방법을 극명하게 거부하고 본질적으로 기술적 방법을 수용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전에 중시되었던 번역과정보다는 번역의 결과 즉 역사적 사실로서 번역된 텍스트를 중시했고 구체적이고 경험적 방법인 실제 현장실습field work,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등을 대단히 선호했다. 예컨대 조작학파의 연구는 주로 번역작품의 분석과 기술, 동일한 작품의 상이한 번역간의 비교, 번역의 수용문제, 번역에 관한 폭넓은 역사적 고찰 등에 집중되었다.²¹⁾

조작학파의 학자들은 처음에는 번역 그 자체에 역점을 두고 번역과정을 좀 더 명확히 기술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나 그 작업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사실상 번역작업은 아무리 많은 언어학적, 문학적, 사회적, 문화적 이론을 섭렵한 위대한 대학자라도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업이다. 그는 문학사에서 번역문학의 일차적(새로운 항목이나 모델을 창조하는) 중요성과 부차적(존재하는 항목이나 모델을 강화하는) 중요성을 인정했다.

21) 다시 말해서 이 학파의 연구방법은 취급된 연구자료가 원문이 아니고 번역된 작품이라는 사실을 제외한다면 비교문학의 전통적 연구방법과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들에 의하면 번역이론 역시 사회적 및 역사적 상황과 병행해서 발전한다. 네덜란드, 푸레밍 등의 학자들은 독일과 체코의 문학자 및 언어학자들과 지적 접촉을 지속한 데 반해서 이스라엘의 학자들은 독일, 러시아는 물론 후에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과 활발한 교류를 했다. 두 지역에서 번역이론 역시 유사하게 발전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인구수가 적은 소국가로서 그들의 민족문학은 주변국가의 거대한 문학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일례로 네덜란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이스라엘은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네덜란드나 푸레밍 지방에서보다 문학의 전통이 없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외국문학에 의존해야 했는데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더욱 그렇게 해야만 했다(Gentzler 1993, 106).

4. 맺음 말

번역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문학작품 번역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 1984년 독일 괴팅겐대학의 문학작품 번역에 관한 연구에 다년간 참가한 학자들이 언어학적 번역이론은 문학작품 번역 연구를 위해서 근본적이고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에서도 문학작품 번역의 특수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학번역이 어려운 것은 문학번역이 단순히 언어기호의 전환이 아니고 문화의 전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 한편 문학의 언어는 언어의 모든 양상을 포함하고 모국어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언어의 규범적 사용법(랑그)과는 거리가 멀고 개인적이고 구체적 사용(빠롤)의 실현이기 때문에 개체성이 그 특성이다.

필자는 본고의 제2장에서 문학작품 번역의 난해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제3장에서 현재까지의 문학번역의 방법을 그 발전과정에 따라 열거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번역하기 위해서 번역자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해야 한다. 번역 결정은 역시 개인적 선택이며 번역자의 세계관, 지적 수준 및 취향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은 당연한 일이다.

참 고 문 헌

- 김효중, 『번역학』, 대우학술총서 103, 민음사, 1998.
 Albrecht, J., 1988. *Europäischer Sturukturalismus*,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adt.
 _____, 1998. *Literarische Übersetzung. Geschichte, Theorie, Kulturelle Wirkung*,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adt.

- Even-Zohar, 1978, *Papers in Historical Poetics*, in B. Hrushovski and I. Even-Zohar(ed) *Papers on Poetics and Semiotics* 8, Tel Aviv: University Publishing Projects.
- Gentzler, E., 1993.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Hermans, T.(ed.), 1985.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Croom Helm, London.
- Holmes, J., 1970. "Forms of Verse Translation and the Translation of Verse Form", in J. Holmes F. Haan, A. Popovič(eds.), 1970. *The Nature of Translation*, Mouton, The Hague/Paris.
- Kloepfer, R., 1967. *Die Theorie der Literarischen Übersetzung*, Wilhelm Fink, München-Allach.
- Koller, W. 1979(중보판 1997).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Quelle & Meyer, Heidelberg.
- Levý, J., 1969. *Die Literarische Übersetzung. Theorie einer Kunstgattung*, Athenäum, Frankfurt.
- Miko, F., 1970. "La Theorie de l'expression et la traduction," in J. S. Holmes, F. Haan, A. Popovič(eds), *The Nature of Translation*, Mouton. The Hague/Pris.
- Popovič, A., 1970. "The Concept 'Shift of Expression' in Translation Analysis", in J. Holmes, F. Haan, A. Popovič(eds.), *The Nature of Translation*, Mouton, The Hague/Paris.
- Schleiermacher, F., 1838. "Ue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 in: *Friedrich Schleiermacher's sämtliche Werke. Dritte Abteilung. Zur Philosophie*, Zweiter Band, Berlin.
- Stolze, R., 1994.. *Übersetzungstheorien*,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 Störig, H., 1963. *Das Probleme des Übersetzens*,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 Abstract

Translation Theories of Literary Works

Hyo-Joong Kim

Translation has much more complicated problems in itself than in general accepted. Translation is almost impossible and very difficul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In 1984, the researchers who were involved for many years in the study of literary translation in Göttingen university, Germany, declared with determination that linguistic theories of translation cannot contribute to the translation of literary works basically. We can assume that literary translation is something really subtle and specific.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translate literary works is because literary translation is not a transposition of linguistic cords but is deeply related to cultural factors.

For two thousand years traditional(prescientific) translation theory was concerned only with outstanding literary works. The most influential concept in the history of translation is the dichotomy of word and sense, which traditional translation theory never managed to overcome, and which still besets translation theory today. It was Cicero in the first century BC who departed from the dogma that translation necessarily consisted of word-for-word rendering and so formulated the alternative: "Non ut interpres ... sed ut orator". For the next two thousand years translation theory was mainly limited to a heated discussion of this dichotomy.

Well over a thousand years later, in 1530, M. Luther was to fight a similar battle with the Church authorities of his time over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Germany. He defended the same basic principles as St. Jerome's, but his words were a good deal more aggressive.

The debate over the merits of the "faithful" and the "free" - the latter culminating in the "belles infideles" - continued to rage in Europe, and it found eloquent expression in Germany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19th century, when translation blossomed again with the romantic movement.

After the announcement of Schleiermacher's well known treatise "Ue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1813)" the emphasis has shifted from the category "not ... but" to the more tolerant alternative "either ... or". Schleiermacher

makes it clear in his treatise that favours the Method of *Verfremdung*, or translation that is faithful to the original.

Apart from the polarized approach represented in the dichotomy, translation theory also presented the means of differentiating and categorizing translation types. This approach was the one adopted by Dryden(1680). Here he distinguishes between metaphrase and imitation; between these two extremes is paraphrase.

The two dominated methods in translation studies recently are those focused on primarily literary works, rejecting theoretical presuppositions, normative rules and linguistic method and those focused on linguistic matters, claiming a scientific approach and rejecting alogical solutions and subjective speculation. Naturally literary translation dismissed any scientific linguistic analysis; linguists dismissed non-scientific literary analysis.

The Prague Structuralists viewed texts as incorporated within semiotic networks and languages as codes of complex language elements that are confined according to certain rule. Levý also incorporated the interpretive aspect into his translation theory, basing such deduction upon W. Quine's hypothesis that translation meaning can be logically interpre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emiotic horizons which come into play in the course of translation, and with the posting of the interpretative component which enables the translator to grasp the meaning of the text in question, Levý was in a position to present his translation theory. Of primary importance in Levý's model is that the literary quality of the works of art should not be lost. To ensure the transfer of "literariness", Levý foregrounds the particular communicative aspect of specific formal features of the original author's style that gives the works of art its specific character. Levý bases this aspect of his translation theory on another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Prague linguistic circle, V. Mathesius.

The formalist's belief that poeticity was a formal quality, something that could be separated out of work, is crucial to understanding Levý's translation theory. In "La théorie de l'expression et la traduction(1970)" Miko reports on his progress, defining what he calls the "expressive categories" of language which lend it its artistic quality.

Popovič's project begins where the work of Levý and Miko leaves off: he begins the comparative work of locating the conformities and the differences that occur when a literary work is translated and explain the relationship of the translated work to the original. Instead of prescribing a technique which eliminates, loses and smooths over changes, he accepts the fact that losses, gains,

and changes are the necessary parts of the process because of inherent difference of intellectual and aesthetic values in the two cultures. He introduces a new term "shift of expression" to characterize this process.

The scholars of the Manipulation School viewed translation studies as a branch of comparative literature. This school is centered round the Dutch-speaking area and is represented mainly by scholars such as Lefevere, Lambert, Hermans and some Israeli scholars such as Toury and Even-Zohar. According to Hermans all translations imply, from point of view of the target literature, a degree of manipulation of the source text for a certain purpose. Hence their starting-point is the exact opposite of that represented by the linguistically oriented school. The translation theory of this school i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literary polysystem going back to the Russian Formalists and the Prague Structuralists. Such a polysystem is not only characterized by constant shifts and changes, but also by internal oppositions, including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models and types. Such primary texts are the innovative ones, introducing into a literary polysystem new ideas, new methods, new ways of looking at literature and world. The secondary texts are the conservative ones which confirm and uphold the existing system.

From this essentially target-oriented starting-point, the Manipulation scholars have developed their own tenets, methods and theoretical models. Their emphasis on the target text naturally leads to a primary descriptive approach. In this view, literary translation is seen as one of the elements participating in the constant struggle for survival and domination.

